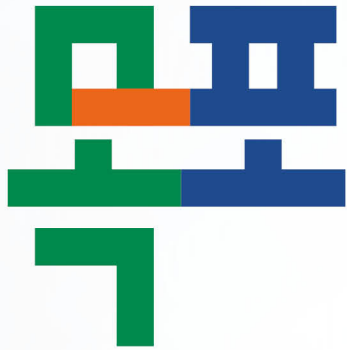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낭만항구

ROMANTIC PORT MOKPO



시정소식

2021년 9월 vol.84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목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디자인

‘낭만항구’는 목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감성을 상징하며,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매력적인 목포시 브랜드



글로벌 관광도시

대한민국 4대 관광
도시 목포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도시에 선정된
목포시는 2025년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다.



맛의도시 목포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도시 목포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한 대한
민국 대표 식도락
성지 목포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 잡는
글로벌 맛의 도시로
거듭난다.



지붕없는 박물관

근대역사
문화도시 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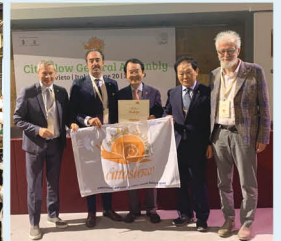
원도심 일대가
100년 역사를 품은
‘지붕없는 박물관’인
목포는 근대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전국최초 예향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

‘예향’목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
으로 문화도시의
날개를 달고 새로운
문화관광도시로
부상한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

국제슬로시티
목포

목포만의 역사·문화·
전통, 생태자원의
가치로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지정
된 목포는 오래갈
미래의 도시다.



CONTENTS

2021년 9월 Vol.84

- 04 시민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3년, 변화를 만든다.
- 06 목포! 친환경선박산업, 세계적 메카로
- 08 “준비된 목포, 새로운 미래를 열다”
 - 신재생에너지, 목포경제의 미래를 연다.
 - 수산식품, 해외시장을 공략한다.
 - 관광산업이 살아야 자영업도 산다.
- 11 목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삼학도 가치와 활용도 높인다.
- 12 즐거운 목포, 새로운 관광명소
- 14 관광정보를 내 손안에서
- 15 유튜브 속 목포
- 16 섬, 미래를 향해 간다.
- 18 예향의 가을, “문학에 빠지고 문화에 물들다”
 - 10월 전국 최초 문학박람회, 문학의 향연속으로
 - 문화도시로 제2의 개항을 준비하다
- 26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는 목포
- 27 일상으로의 회복, 다시 내딛는 걸음
- 28 시정뉴스
 - 대한민국 우수지자체 평판대상 수상
 - 목포 원도심 환경 확! 바뀐다
 - 근대건축자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
 - 대양산단 분양률 93.7%, 연말까지 100% 완판 예정
 - 주민과 함께하는 1일 동장
- 30 의정소식
- 32 우리동네 소식



Cover Story

‘목포 3+1 전략산업’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3년, 변화를 만들다.

목포발전의 획기적 변화 기반 마련

그동안 목포는 3대항 6대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고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에 문화예술을 더한 '3+1 미래전략산업'의 기틀을 다진 결과 목포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

-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친환경선박과 해상풍력**을 두 축으로 한다.
 -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클러스터가 남항에 조성되고 있다.
 - 목포 신항은 해상풍력단지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로 조성되고 대양산단에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된다.
- ✓ 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 ✓ 목포는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1,500만 관광도시 목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고, 이제는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의 마중물이 될 **법정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다.

2018년 목포의 강점 살려 도시 브랜드가치 높이는 초석을 마련하다

미래전략산업 설정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문화예술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2019년 미래전략산업의 토대를 다지다

맛의 도시
선포

수산식품종합
수출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확정

국제슬로시티
승인

제1회의
섬의 날 행사
(19.8.8)

국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맛 브랜드 선정

(19.4.12)

전국 최고의
수산식품도시로
나아가는 첫 관문을
넘어선 것



대양산단의 가치를
높여 분양증가의
물꼬를 튼 계기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목표 경쟁력 확보

3+1 미래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도시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이는 목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 도시브랜드가치 상승은 **공공기관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 ▲ 삼학도 한국섬진흥원 유치 ▲ 스마일센터, 호남권플러스센터 등 12개 공공기관 유치
- ▲ 유달경기장, 예정가의 3배 이상인 937여억원에 매각 ▲ 장좌도 1,350억원 규모 고급리조트 민간투자 유치

☑ **관광도시 목표**의 저력 발휘

- ▲ 코로나 장기화에 타지역의 경우 30~40% 관광객 감소, 그러나 목표는 단지 6% 감소

☑ **각종 수상**도 휩쓸어

- ▲ 2020도시대상 1위 ▲ 2020대한민국 공공홍보대상 1위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 ▲ 대한민국 우수지자체 평판대상 수상

국비확보 대폭증가, 예산 1조원 시대 열다.

2020년도 최종예산은 1조1,105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도 1조123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이다. 2021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정부 공모 등 국가사업에 대거 선정된 결과이다. 현재 2022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목표관련 예산은 8,499억원이다. 특히 3대 전략산업 관련이 대거 포함되면서 미래 먹거리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21억5천만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73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개발 24억원 ▲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비 15억원 ▲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공사비 300억원
-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련 52억5천만원

그 외에도 ▲ 한국섬진흥원 47억원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538억원 ▲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 149억원 ▲ 신항 예부선부두 건설 143억원 등이다.

2020년

국가사업과 연계해 정부 공모사업 선점,
미래전략산업을 정부정책사업화하다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1500만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점

(20.1.28)

전기추진차도선 및
전원공급시스템
실증공모사업 선정

세계적 친환경선박산업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선점에 성공

2020
도시대상
수상
(20.10.26)

기업하기
좋은도시
선정



예비
문화도시
승인

2021년

미래전략산업 추진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다

한국섬진흥원
유치

목포가 대한민국
섬의 중심으로 우뚝,
2028 세계 섬엑스포
유치에 유리

(21.4.4)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공모사업
선정

목포문학박람회
개최



(21.10.7)

친환경선박 최적지 목포, 세계적 메카로 우뚝!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뜨겁다. 선박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저탄소·무탄소, 전기와 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전세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는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이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목포가 있다.

대한민국 친환경선박산업, 목포에서 본격 추진



지난 7월 28일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친환경선박산업 세계적 메카를 향한 목포시의 도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진짜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정부, 전라남도과 목포시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연구소,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등 대학, 관련 기관, 해운사, 엔지니어링사,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국내 유수의 조선 및 기자재 기업까지 참여해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협약 체결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아우르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돼 목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가 한층 불을 전망이다.



- » 세계시장 **270조 규모**, 목포가 선점
- » 약 **2조 1천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 » 연간 약 **4만9천명** 고용유발 효과

목포, 친환경선박 최적지로 낙점



▲ 친환경선박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친환경선박산업은 시장이 세계적이고, 수요가 높다. 세계 시장 규모가 270조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다. 우리 정부 또한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사업’을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각별한 역량을 쏟고 있다.

목포시는 이런 정부의 계획에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정부는 전기로 움직이는 배를 개발하고, 이를 실험하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목포를 낙점했다. 참고로,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해권에서 운항중인 중소형 선박이 1천1백여 척이고, 목포는 국내 여객선 운항의 55%정도를 차지한다.

최초의 전기추진 차도선 목포에서 만들어 띄운다.

현재 목포에서는, 100% 전기만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제1호 전기추진 차도선을 만들어 띄우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함께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약 450억원이 투입된다.

다른 하나는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415억원이 투입되는 데 친환경 연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육상과 해상의 시험장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올 연말이면 첫 전기추진 차도선이 목포에서 진수될 예정이다.

인재양성 준비도 착착, 연구소 및 대학캠퍼스 설립

정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산하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본부가 남향에 들어설 예정이다. 목포가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터전이 됐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32개 정부 출연연구소가 공동설립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 대학원으로 오는 2023년 목포캠퍼스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에 특화된 ‘그린 모빌리티’전공을 신설해 ‘2022년 신입생’모집 등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친환경선박산업 메카를 향한 질주

이제 본격 시동이 걸렸다.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목포는 명실상부한 친환경선박산업의 메카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54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목포가 선점해 앞서 나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존 사업 2건 관련 국비 95억여 원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5개 사업 국비 293여억원이 반영됐다.

인구증가·일자리 창출!

3대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룬다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목포도 예외없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시대를 맞이했다. 거기에 신도시로의 이전도 늘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인구 유입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 바로 해상풍력산업과 친환경선박산업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향상된 목포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면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목포경제의 미래를 연다

친환경 배 만들고 띄워 세계시장 선점



〈목포 남항〉

약 4만9천명 고용효과

남항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집적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과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소와 대학캠퍼스도 들어선다.

바람의 힘으로 ~ 해상풍력산업



〈목포 신항〉

450개 기업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



〈대양산단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조감도〉

신항에서는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터빈 타워 등 주요 기자재와 부품을 생산해 전용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시공한다.

블레이드, 타워, 터빈 등 대형 풍력기 기자재·부품 생산단지가 될 2단계 배후부지(238㎡)와 지원부두 1선석(3만톤)이 조성된다.

대양산단과 신항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종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입지조사부터 기자재 운송 지휘 등 통합관제, 유지보수까지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운영의 전주기를 지원하게 될 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수산식품, 해외시장을 공략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36개 기업유치, 2,154명 일자리 창출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수산식품의 고품질화가 이뤄진다. 조성예정인 수산식품수출단지에는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지원 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산물 거래소, 수출지원 시설이 들어서는데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해 수산식품산업의 질적 변화를 이끈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전국 최대 수산물 집산지에 머무르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

수산식품산업으로 36개의 기업이 유치되고 2,154여명의 일자리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기업 유치는 1,978억원의 생산유발·1,17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수산식품이 목포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를

선도할 쌍두마차 김과 어묵

간판 상품은 김과 어묵이다.

김(100억원)은 바다의 반도체라 불리고 있다. 목포가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산업이다. 세계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김 가공제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구축될 마른김 거래소는 전남의 마른김 거래 표준을 세우는 한편 유통가격의 투명성을 강화해 세계 마른김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어묵(100억원)은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산업기반을 넓히고 있다. 어묵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가 하면 어묵의 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조공장 구축, 어묵브랜드화,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고품질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유통시설 등 최첨단 장비 지원

현재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가 구축됐는가 하면 자동선별기가 도입된 선어위판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저온위판 시스템과 늘어난 물량처리를 위해 활어위판장도 추가 신축된다.

생산에서 유통, 물류,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면 수산식품의 브랜드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관광산업이 살아야 자영업도 산다

관광분야 최대 사업 규모인 관광거점도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목포! 관광을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의 하나로 정하고, 그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유수의 쟁쟁한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성과다.

왜 관광산업이 중요한가?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은 소비를 할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다. 목포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도시 이미지를 ‘확’ 바꾸다

목포시는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했다. ‘낭만항구 목포’에 이어, ‘맛의 도시’, ‘근대역사문화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국제슬로시티’를 도시 브랜드로 일궈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에 이어 ‘문화도시’로도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관광명소 ‘대폭’ 늘리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함께 고하도 해상 데크와 목화체험장, 대반동 스카이워크, 삼학도 항구포차, 유달산 목재체험장 등 새로운 인프라를 조성했다. 식도락 여행가들에게는 ‘으뜸맛집’도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됐다. 맛과 멋 ‘해변맛길 30리’, 바다분수에 공연과 불꽃쇼가 더해진 ‘목포 해상W쇼’,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장좌도 ‘고급 관광리조트 예술랜드’도 기대된다.



국내외에 목포를 ‘널리’ 알리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필터리듬오브코리아’ 동영상 목포편은 우리 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전국 최초로 미디어마케팅팀을 신설해 영화와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 홍보를 추진한 결과 2020년도 공공홍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광객 증가, 목포관광의 경쟁력 ‘확실히’ 입증하다

목포의 관광객은 2017년까지 25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과 2019년을 거치며 대폭 상승해 590만명(출처, 문체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2020년에는 관광객 551만 8,6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에 비해 6.5% 감소한 수준으로 타 지자체가 30~40%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크게 선방한 것이다.

1,500만 관광객과 자영업자 함께 웃는 날 ‘반드시’ 온다

이제 목포는 관광객 1,500만명이다. 목포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관광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삼학도 가치와 활용도 높인다

“원석은 다듬어야 더욱 가치 있는 보석이 되듯, 삼학도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추억 속에 멈춰선 삼학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 더 크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삼학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꿈꾸는 삼학도의 미래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

사계절 꽃피는 테마정원

복원화 사업으로 되살린 삼학도! 사계절 꽃과 숲이 어우러진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계속 사랑받는다.

경제활성화의 거점

놀이시설, 국제회의 가능한 대형 컨벤션 갖춘 5성급 호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끄는 필수자원!
미래로 도약하는 목포의 경쟁력과 삼학도의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평화와 희망의 상징

김대중평화회의와 한국섬진흥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평화를 주제로 2년 마다 국제회의가 열린다. 또, 삼학도에 설립되는 한국섬진흥원은 대한민국 섬의 희망이다.

삼학도가 이렇게 바뀌면, 목포는 뭐가 좋아지는가?

- ▲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정원 보유
- ▲ 국제회의, 기업세미나 등 대형 행사 유치로 유동인구 증가해 주변 상권 활성화
- ▲ 관광객들의 대형 유희·숙박 복합시설 수요 해결, 이 자체가 관광명소
- ▲ 시설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에 활력

오랫동안 이어온 노력, 복원화 사업은?

- ▲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1,300억원에 비해 효과는 미비
- ▲ 특히, 구)석탄부두 일대는 애물단지로 방치, 회색빛 콘크리트를 걷어내는데 약 4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 ▲ 정원, 수변, 숲길, 수로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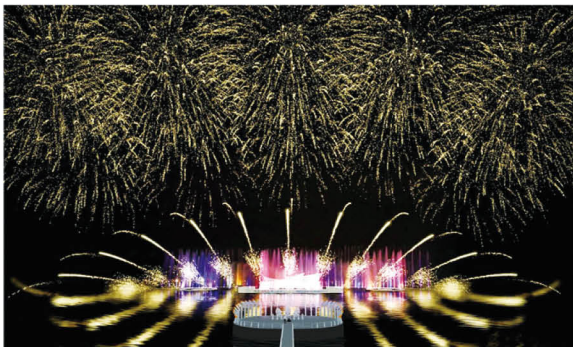
컨벤션 갖춘 5성급 호텔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 그럼 왜 삼학도인가?

- ▲ 대규모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
- ▲ 근대역사문화공간과 평화광장을 잇는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
- ▲ 막대한 예산(400억 이상)이 소요될 구)석탄부두 복원화를 민자로 해결 가능
- ▲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에도 그 명성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필요

목포를 즐기는 새로운 볼거리

맛의 도시, 낭만항구,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를 수식하는 브랜드는 다채롭다. 여기에 더해 목포시민과 여행자들에게 목포만의 색다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목포의 맛과 멋을 즐기고 체험하면서 야간경관까지 둘러볼 수 있는 곳들을 만나보자.

바다분수+공연+불꽃쇼, 목포의 명품 '목포해상W쇼'



평화광장에서는 목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특별한 쇼를 만끽할 수 있다. 이름하여 '목포해상W쇼'다.

목포해상W쇼는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 불꽃쇼가 한데 어우러지는 행사로 10월 6일 시연회를 필두로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다보며 걷는 호젓한 길 '고하도 해상데크길'



국내최장 해상케이블카에서 나무계단과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면 바다를 끼고 해안절벽과 나란히 걷는 해상데크길을 만날 수 있다. 최근 2차분까지 개통해 전체길이는 1,818m다. 일제강점기 설치된 해안동굴을 볼 수 있고 해안절벽 사이로 멋들어지게 솟은 해송을 감상하면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기에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한 16m 길이의 스카й워크 구간도 2개소 설치해 스릴감을 높였다.

나무로 힐링하는 '유달산 목재체험장'



초록으로 물든 유달산을 걷다보면 반가운 시설을 만날 수 있다. 지난 8월 목재체험장이 개장해 나무를 통한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다. 이곳은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나무를 다듬고 목제품을 만들면서 목공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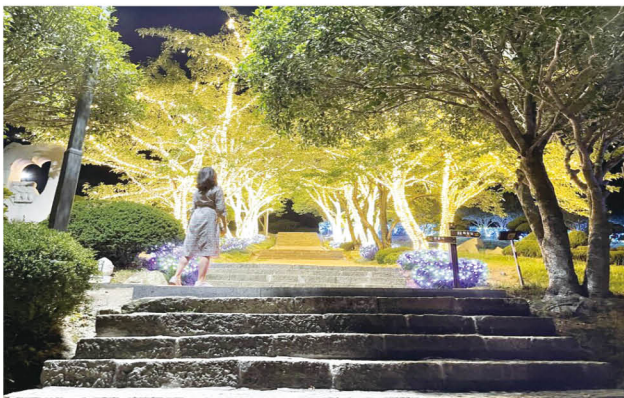
해변맛길 걸으며, 맛과 멋 만끽 ‘해변맛길 30리’



맛을 즐기면서 근대역사,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길이 열린다. 바로 ‘해변맛길 30리’다. 평화광장에서 갯바위를 거쳐 남향과 삼학도를 지나 목포해양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총 12km의 길이다.

‘맛의 도시’ 브랜드에 맞는 구간별 맛집을 선보이면서 단순히 걷는 데서 그치는 길이 아니라 ‘근대역사와 문화, 예술’ 등 목포의 매력과 융합되고,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근 개통한 2구간은 숲길과 꽃길은 물론 왜가리, 노란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도 만날 수 있다.

달밤에 즐기는 ‘유달산 조각공원’



유달산은 밤의 전경도 멋들어진다. 유달산과 목포해양대를 거쳐 목포대교, 고하도로 연결되는 야간조명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야간관광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는 유달산 조각공원이 빛나는 밤을 선사한다.

야간 나들이객을 위해 조각작품 10여점과 보행자를 위한 바닥 등, 수목 LED 은하수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늘리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심속 작은 쉼터, ‘목화정원’에서 힐링



목화의 일종인 육지면을 최초로 재배한 곳이 목포고하도다. 이곳 고하도에 운영되고 있는 목화체험장 주변에 목화정원이 조성된다.

문화체험관과 연계된 색다른 테마정원이 될 목화정원은 ‘생활밀착형 숲’과 ‘도심권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숲’은 산림청 주관으로 9월 말 완성되고, ‘도심권 생활정원’은 올해 말 만나볼 수 있다. 고하도에 두 정원이 조성되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부모들은 정원을 거니는 ‘놀고 걷고 보고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한 관광이 뜬다!



휴대폰 하나로 모든 목포관광 O·K, 스마트관광 안내 플랫폼

목포시는 한손으로 즐기는 관광정보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목포시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야심하게 추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손쉽게, 그리고 폭넓게 목포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휴대폰 속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 공영주차장, 공영화장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통합 관광정보제공시스템은 나만의 관광코스를 설정하고, 관광지 리뷰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앱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과 12개 언어 번역 시스템도 탑재된다. 이로써 외국인 관광객도 자국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근대역사거리, 유달산, 옥단이길, 문학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실감콘텐츠로 즐기는 목포 시간여행



목포근대역사관이 호남권 최초 XR콘텐츠(확장현실) 체험공간으로 거듭난다.

‘XR로 보는 목포 시간여행’이라는 콘텐츠는 AR글래스를 착용하고 이동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목포가 도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눈과 귀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로 작업된 1·2관의 소장품과 2관의 근대 사진이 2층 대형 스크린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관람객은 자유롭게 화면을 터치해 관심있는 정보를 재미있게 취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목포의 역사와 문화재를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할 계획이다.



게임인데, 관광이라고요?

휴대폰 속 게임을 통해 목포를 만날 수도 있다. 목포관광과 연계된 게임 ‘퍼품 오브 더 시티 : 목포’가 선보이면서 목포관광이 좀더 재미있어졌다.

‘퍼품 오브 더 시티 : 목포’는 목포에서 쏘카 차량을 타고 약 7km 구간을 이동하면서 관광명소들을 탐험하는 미션게임이다. 게임은 목포역에서 출발해 유달산 노적봉, 목포 근대역사공간, 서산동 시화골목, 유달유원지로 이동하며 20개 안팎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전부 완료하면 쏘카 차량 대여료 60% 할인 쿠폰도 보상으로 지급된다.



유튜브 속에서 입증된 목포의 위상



6억뷰 필더리듬오브코리아 (Feel the Rhythm of KOREA), 목포를 전세계에 알리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해 지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필더리듬오브코리아는 전 세계 6억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중 목포편은 4천8백만뷰 이상이 조회됐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목포가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필더리듬오브코리아에 이어 K-컬처페스티벌, 아이쿱댄스챌린지 등의 영상도 연달아 제작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를 직접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작된 이 영상들을 통해 목포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함께 관광경쟁력이 한층 커졌다.

특히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관광객 추이로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관광객이 30~40% 감소한 타 지역에 비해 6.5%감소에 그쳐 관광도시 목포의 저력을 발휘했고,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도시가 됐다.



TV와 영화속 목포, 유튜브에서 만나다

TV와 영화에서도 목포알리기는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은 물론, 다큐멘터리 3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손현주의 간이역, 살림남 등의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다.

이런 콘텐츠는 방송으로만 그치지 않고 유튜브에 편집된 장면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세상속에서 목포를 새롭게 만나고 있다.

유튜버들의 성지가 되다

목포를 찾은 유튜버는 수없이 많다.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여행 유튜버 '초마드'가 목포를 소개한 영상은 현재 조회수 4만4천회를 넘는다. 초마드는 젊은 여행 작가로 구독자 수가 68만여명 정도다.

또 많은 유튜버들이 목포미식여행, 서산동 in 목포, 가은이의 목포 랜선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목포를 소개하고 있다.

목포의 섬, 삶의 질이 확 바뀐다

가고 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으로 도약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섬,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달리도, 외달도, 울도, 고하도, 장좌도 등 목포의 섬 또한 저마다의 개성을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으로의 도약, 그 길을 따라가 보자



어촌뉴딜300

여객선 접안이 어려운 소규모 항포구를 개선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면서 섬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섬의 교통이 편리해지면 관광객 유인효과가 힘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몰려들 것이다.

현재 목포는 3년 연속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렛대 삼아 달리도와 외달도, 울도, 고하도를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힐링의 섬으로 조성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섬에서도 수돗물 ‘칼칼’

섬 주민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물 문제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섬의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북항에서 시작한 상수도관을 장좌도에 이어 울도를 연결한 뒤 달리도 육상구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장좌도에 수돗물이 통수됐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간이 상수도에 의존해 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섬 주민 배상은 '천원'

섬(외달도, 달리도, 울도)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이라면 운항거리와 상관없이 '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돼 많은 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좌도 리조트 조감도

섬 전체가 관광지로 환골탈태

장좌도에는 해양관광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1,35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시설과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장좌도는 맑은 공기에 고즈넉한 풍경을 통해 갑갑한 코로나생활에 지친 이들에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선물할 예정이다. '호캉스' 저리 가라 할 '섬캉스'의 매력이 장좌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더 큰 미래, 2028섬엑스포 유치

가고 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의 완성을 위한 뒷받침에 정책적 노력도 이어진다.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이어 다음 목표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다. 서남해안 섬 벨트를 이루는 목포와 완도, 진도, 신안군 등 4개 시군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면 공감대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또 섬의 날 제정 20주년인 2038년 국제형 행사 개최, 제정 30주년인 2048년에는 국제박람회 기구(BIE) 공인 섬 엑스포 유치까지, 섬 관련 정책은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 만드는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

올해 초 목포는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정부기관으로 10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섬진흥원 유치로 향후 5년 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용역 결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목포는 어느 지역에서도 주목하지 않았던 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 기관·단체, 지역언론사 등과 함께 섬 전문 국가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 왔다. 이런 노력의 과정 속에서 섬의 날인 8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그 결과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삼학도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목포에 위치한 한국섬진흥원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10월 전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 문학의 향연속으로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

일시 : 10월 7일 ~ 10월 10일

장소 : 평화광장, 원도심, 목포문학관 일원 등 목포시 전역

한국문학의 거목(巨木)과 인연 깊은 문학도시, 목포

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목포문학박람회가 전국 최초다. 목포는 전국 최초로 예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국 근대문학을 꽃피워 문학의 전통성이 깊은 도시가 바로 목포다.

한국 근대극 창시자 김우진, 한국 최초의 여성장편소설가 박화성,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 차범석, 한국 문학평론의 창시자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거목들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다. 이외에 최인훈, 황현산, 천승세 등도 목포와 인연이 깊다.

지방중소도시 중 이처럼 큰 족적을 남긴 문학인을 다수 배출한 도시는 흔하지 않다.

문학박람회 준비 착~착~착~

목포문학박람회 준비는 순조롭다. 한국의 대표 문인인 한승원(소설가)씨와 황지우(시인)씨가 위원장을 맡은 자문단을 출범한 데 이어 목포 출신의 황정산 문학평론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도 구성했다. 100일 동안 100명이 전하는 100권의 책 기부 챌린지인 ‘북적북적 문학박람회’는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의 문학박람회 참여에 협력을 이끌어냈는가 하면 한국문학관협회 등과도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의 문학인과 문학단체, 출판단체 등도 힘을 모으고 있다.



1억3천만원 국내 최대 상금 목포문학상, 당선작 결정

총 1억3천만원 상금의 목포문학상 공모에는 국내외 작가 1,136명이 3,728편을 응모해 뜨거운 참여열기를 보였다. 심사결과 총 4편이 선정됐고 장편소설 당선작은 박람회기간 책으로 만날 수 있다.

목포문학상 당선작			
분야	당선자	제목	상금
장편소설	이숙종	보트하우스	1억원
시	오정순	동호 댁 할머니 손가락엔 구구단이 산다	1천만원
희곡	박소연	행진곡	1천만원
평론	강도희	돌봄의 위기속에서 문학이 윤리를 말할 때	1천만원

당선소감



장편소설 당선자 이숙종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장군의 총구에 얹은 노랑나비가 가슴속에 남아있다. 독립군 포로의 혼인 노랑나비, 나의 이야기는 대부분 영화 속 노랑나비처럼 가슴속으로 들어온 어떤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난히 물가에 바짝 붙은 그 집과 그 집 거실에서 촬영한 강 위에 뜬 얼음덩어리를 가슴 속에서 굴리다가 <보트 하우스>를 쓰기 시작했다. 삼 분의 일 정도 썼을 때, 유튜브에서 지구 생성에 관한 비디오를 봤다. 감동이 일어났다. 소설의 플롯을 수정했다. 그렇게 처음 시도의 물에 관한 이야기가 불과 물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때 방치됐던 ‘물속 무덤’을 <보트 하우스> 안으로 들여왔다. 거기에 오래 간직한 미국 원주민에 대한 연민을 주요 소재로 풀어내며 글을 완성했다.

많이 부족했을 장편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과 목포시와 문학박람회 관계자, 문학과지성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학박람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 학생 자치 실현의 첫걸음, 문학박람회 참여로

목포학생회연합회 회장 홍승연(헤인여고 2학년)

문학박람회 준비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중가요를 개사해 춤추고 노래부르거나 문학박람회 주제로 시민 인터뷰를 영상에 담는 식으로 각 학교별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문학박람회가 열리면 나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다.

☑ 문학거장의 깊은 향기, 기다려집니다.

문학SNS서포터즈 조종현(경기도 용인시)

목포는 맛집 많고 풍류가득한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골목마다 있는 문학인들의 얼굴과 작품 소개를 보고 목포문학에 대해 알게 됐고 주민들에게서 목포문학 거장분들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느낄 수 있었다. 근대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라서 근대문학사에서 목포가 갖는 상징성도 대단한 것 같다. ‘국제 슬로시티목포’의 의미와도 맞닿는 행사인 것 같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목포문학박람회 100배 즐기기



기념행사 | 평화광장 해상무대

○ 개막식

- 일 시 : 2021. 10. 7.(목) 19:00
- 주요내용 : 식전공연, 환영사, 축사, 개막선언, 퍼포먼스 등
- 문학 & k-pop & 힙합과의 크로스오버 콘서트 & 영상쇼 & 바다분수쇼

○ 목포문학상 시상식

- 일 시 : 2021. 10. 9.(토) 19:00
- 주요내용 : 식전공연, 인사말씀, 심사평, 축하공연 등

○ 폐막식

- 일 시 : 2021. 10. 10.(일) 19:00
- 주요내용 : 식전공연, 하이라이트 영상, 폐막선언 퍼포먼스 등

4인4색 문학제 | 목포문학관 일원



김우진의 날(10.7) 한국 근대극 창시자 | 14:00

- 전국학술대회, 김우진 연극 ‘이영녀’ 공연, 연극제작자 좌담회 등
- 드라마 ‘사의찬미’ 감독·배우 토크콘서트



차범석의 날(10.8) 한국 사실주의 연극 완성자 | 14:00

- 전국학술대회, 차범석희곡상 수상작가와의 대화, 차범석 연극 ‘밀주’ 공연



박화성의 날(10.9) 한국 최초 여성 장편소설가 | 10:00

- 박화성 학술대회, 백일장대회, 작가 토크콘서트
- 박화성 단편소설 옴니버스연극 등



김 현의 날(10.10) 한국 문학평론 창시자 | 10:00

- 컨퍼런스 ‘김현문학의 시원과 염원’, 시노래콘서트, 한국 평론가 대회 등

전국 문학인 대회 | 목포문학관 일원



한국문학관대회 | 한국문학관협회

- 일시 : 10. 7.(목)~10.8.(금)
- 한국문학관총회, 스토리텔링경연대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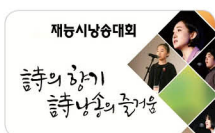
한국여성문학인대회 | 한국여성문학학회

- 일시 : 10.9.(토)~10.10.(일)
- K-문학을 보라 여성작가릴레이토크콘서트 (진행 황인찬, 토크 은희경, 공선옥, 정지아 등)



한국시조시인대회 | 한국시조시인협회

- 일시 : 10.9.(토)~10.10.(일)
- 시조백일장, 해설이 있는 시조낭송회 등



전국재능시낭송학교 | 재능시낭송협회

- 일시 : 10.8.(금)~10.10.(일) 10:00~18: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 시인초청 강연회(나태주, 이근배, 신달자 등), 낭송 강연(이연희, 손진책) 시노래 공연(김현성), 시낭송경연대회 등

전시관 | 목포문학관 일원



주제관 (목포문학→남도문학→한국문학)

- 목포문학타임슬립, 남도문학 바다로의 향해, 한국문학의 힘, 미래문학의 산실



출판관 (출판사 유치, 전시, 프로그램 운영)

- 출판마케팅 라이브 스튜디오, 트랜드 북커버 전시 등



미디어셀러관 (만화&웹툰관, 영화·드라마관)

- k-콘텐츠 명예의 전당, 웹툰미디어 셀러 전시, 웹툰 캐릭터 드로잉쇼, 미디어 굿즈 전시 등



글자콘텐츠관 (한글을 이용한 글자놀이 콘텐츠관)

- 한글의 멋, 세계 글자 그래픽, 글자디자이너와의 만남, 글자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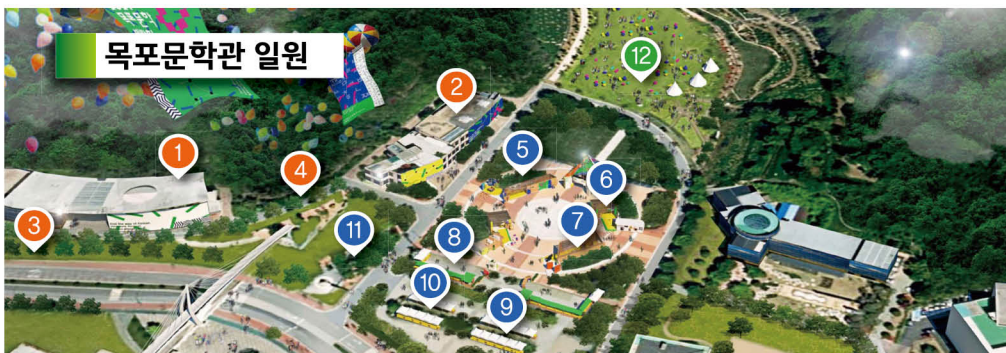
독립서점관 (전국 독립서점 북페어)

- 독립서점 책 전시 및 판매, 창업컨설팅 등



헌책방관 (문학 아나바다 캠페인)

- 헌책 전시, 기부 및 판매, 1인 헌책방 운영



문화 주제존	① 목포 문학관
	② 주제관 (건물 1층)
	③ 남도 문학관
	④ 작은 도서관
문학 전시존	⑤ 글자콘텐츠관
	⑥ 프린지무대
	⑦ 출판관
	⑧ 미디어셀러관
	⑨ 독립서점관
	⑩ 문학체험존
	⑪ 헌책방관
문학 웰니스 테라피존	⑫ 문학 웰니스 프로그램

문학공연 | 목포문학관 일원 프린지 무대



목포문학 창작공연

- 옥단어 놀자, 목포전설턴



책에서 걸어 나온 석고마임

- 문학 작품속 해설을 곁들인 마임공연



김우진 作 이영녀 공연

- 한국 근대극 창시자 김우진 대표작 연극공연



문학에 스며든 음악

- 노래가 된 문학작품 공연



해설이 있는 시와 가곡

- 가곡을 통한 문학작품 감상



아트 북 매직쇼

- 문학과 접목한 마술이야기



가을... 춤 그리는 향

- 문학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코로나 역병은 조선사운드로~!

- 코로나 극복을 위한 퓨전 국악연주



인형극 “사랑에 빠진 개구리”

- 다문화 인식 관련 인형극

골목길 문학관 | 목원동(남교소극장 일원)

골목길 문학 아카이브

- 옥단이 골목길 주민 생애담 나누기

골목길 문학 토크

- 안치환&정호승 시인 초청 토크 콘서트

골목길 문화 향연

- 문학이 미술을 만날 때

골목길 문학을 만나다

- 골목길, 공가 활용 문학인의 방 운영

나도 문학인

- 주민 연극 공연 ‘김우진 作 이영녀’

문학 도깨비장터

- 서점, 공예 아트마켓

문학 체험

- 옥단이 조형물 설치 및 포토존

골목길 품앗이

- 차마에서 만나는 문학공연(꽃집&플룻)



문학 웰니스테라피존 | 목포문학관 일원 생태공원

문학트레킹

- 오디오북 트레킹, 문학작품 감상

책읽는 날

- 오디오북 독서 힐링, 문학포토 콘테스트

문학치유존

- 문학마음약방, 명상치유, 문학자판기

문학관광상품

문학유람선 선상문학콘서트

유람선을 타고
선상에서 시낭송 등의
문학체험

목포 근대문학길 투어

목포 대표
문인들의 생가,
작품 배경지 답사

목포 문학여행

버스를 타고
박람회와
목포 대표
문학관련 장소 답사

목포문학과 일주일 살기

목포에서 일주일 간
살아보면서
문학관련 장소와
먹거리 체험



2021 목포문화재 야행 ‘목포모던타임즈’ 속으로

2021 목포문화재 야행이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4회째인 목포문화재 야행은 4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목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 모던타임즈’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야행의 개막공연은 한국최초의 여성장편 소설가 거성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다. 하수도 공사는 1930년대 도시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운동 사실에 근거하여 집필한 작품으로 근대문학 중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재해석한 공연이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코너는 운영하지 않지만 근대거리에 낭만 포토존, 청사초롱길 등을 만들어 나들이 가고 싶은 가을밤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공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목포명인전’을 통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와 전통춤 공연도 함께할 수 있다. 더불어 모던타임 패션쇼를 통해 온라인 문화재 키트(만들기)체험 신청을 통해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야행을 즐길 수 있다.

2021 서남권 뮤지엄 페어

최초 목포문학박람회가 열리는 10월, ‘2021 서남권 뮤지엄 페어’가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서남권에 소재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남권에 소재한 각 박물관과 미술관의 야외 전시 부수와 참여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 뮤지엄 페어의 핵심이다.

‘찾아가는 우리박물관’ ‘박물관이 살아있다’등의 전시가 마련되고, 이와 함께 야외 기획전인 ‘다이노프렌즈 프로젝트’와 문화재청 연계사업인 ‘찾아가는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이 운영되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목포문학박람회와 문화재 야행, 서남권 뮤지엄페어까지 10월의 문화향연이 기대된다.

문화도시로 제2의 개항을 준비하다

문화도시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정책, 모든 문화가 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국비 100억 원 포함 총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된 목포!

예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목포가 지난해 말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전장을 내민 총 41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0곳을 선정했다. 그 10곳에 목포가 포함됐다.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한 성과였다.

법정문화도시 지정되면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2021년에는 법정문화도시에 도전한다.

현재 목포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도시센터를 개소하고 7개 예비사업을 시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현장평가와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종합발표를 통해 심사받는다. 법정문화도시는 12월 말 최종 지정되는데 시민과 공유한 프로그램이 집중된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문화도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목포는 명실상부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로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도시가 된다.



시민과 함께 대항해 시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와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은 시민이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센터 구축 외에도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갯물학교와 문화항구 조타실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문화갯물학교다.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에 대해 교육하는 사업이다.



문화항구 조타실은 시민,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문화도시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시민추진단과 23개동의 이야기를 수집해 전달하는 문화통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도시 R&D와 꿈지락 실험실

문화도시 R&D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기록하는 사업이다. 최근 ‘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수상작을 전시한다. 또 ‘예향문화기록단’을 운영해 목포 23개동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데이터로 구축한다.

시민참여 문화실험장인 꿈지락 실험실은 목포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간이 없는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문화다방과 뜰금포 기획단

문화다방은 미술작품 전시 관람 외에도 염색이나 탁본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동안 아트센터 신선, 밀물 카페와 목포 상회에서 그림을 관람하거나 탁본을 떠보고 직접 염색을 하는 등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연 등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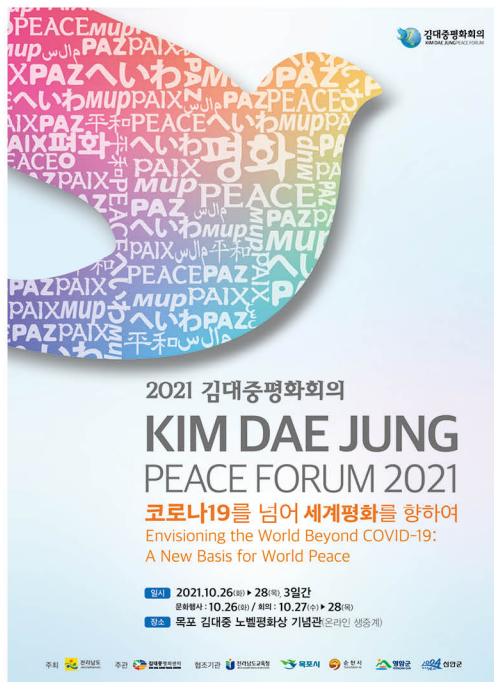
뜰금포 기획단은 뜰금없는 생각을 실현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집 강아지·고양이가 명화 주인공이 된다’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가 운영돼 많은 이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대규모 국제행사 잇따르는 목포

지역위상과 브랜드 가치 높일 것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평화·민주주의 장 2021 김대중 평화회의



2000년 12월 역사적인 순간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100번째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다. 올해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21주년이 되는 해다. 이 수상을 기념하는 국제회의가 목포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26~28일 삼학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원에서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처음 개최된다. 이번 평화회의는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세션토론, 부대행사(영상·사진전) 등을 진행한다. 평화회의는 20여 개국·2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온·오프라인에서 치러진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민주주의·인권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장소로 목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묵의 향연 2021 국제수묵비엔날레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윤림산방 일원, 광양과 여수, 광주 등 광주전남 전역에서 수묵의 향연을 뽐낸다.

서양화,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 천연염색까지 다양한 장르의 수묵 작품을 선보이는데 총 6곳의 전시관 중 목포는 3곳이 포함됐다.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묵 없는 수묵(無墨水墨), 수묵은 도처에 있다'라는 주제로 거물급 수묵작가와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는 '시대의 수묵-경계의 확장'이란 주제로 지역 수묵 작가 25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3관인 유달초등학교에서는 '일즉다다즉일(一即多多即一), 이울배반적 수묵의 최신버전'이란 주제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 경쟁력 키운다

자영업자 매출 올리는 신(神)의 장사전략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한 강의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형 장사의 신’, ‘장사는 전략이다’ 등의 저자로 유명한 전 MBC PD 출신이자 외식업 컨설턴트인 김유진 강사가 나서서 자영업자를 위한 영업 전략을 전수하고 있다.

신의 장사전략 아카데미는 매출을 올리는 11가지 비밀, 사장의 전략, 고객의 뇌를 여는 비밀 등과 같은 주제가 강연됐다.

‘신의 장사전략 아카데미’는 지난해 처음 시작해 그 효과가 컸다. 1기 수료생의 경우 97%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78%가 코로나19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수강 전 대비 매출액이 향상(10~40%)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수료생들은 아카데미 후 자체 모임을 결성해 성공사례,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며,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안심콜, 전화한통이면 안심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안심콜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 PC방,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424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수기작성의 불편함이 해소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는 앞으로 다른 업종 시설로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맛의 도시 경쟁력 높이는 으뜸맛집 미식아카데미

맛의 도시 목포의 브랜딩을 위한 강의, 목포 으뜸맛집 미식아카데미도 열고 있다.

‘의미와 스토리를 팔아라’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미래의 음식점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이 진행됐다. 이 강의는 으뜸맛집 브랜딩의 초석을 다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음식점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미식문화 상품화에 대한 경영마인드, 가정간편식과 밀키트 상품화 전략에 대한 내용도 주요 강의 주제로 미식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으뜸맛집이 목포의 외식업 문화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맛있는 목포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달라진 맛집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우수지자체 **평판대상 수상**



목포시가 2021년 ‘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을 수상했다.

평판대상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등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 시상위원회가 선정하는 상으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시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확대됐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를 기초로 1차 상위 70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평가했는데, 평가 결과 목포시, 서울 종로구 등 27개 기초자치단체와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광역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관광거점도시에 걸맞는 도시브랜드 및 관광인프라 구축, 전국 제1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도시대상 수상, 섬진홍원 유치 등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제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목포 원도심 환경 **확!** 바뀐다

목포의 원도심 일대가 근대역사 공간의 가치는 살리고, 쾌적함과 안전함은 더한 도보 환경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다. 먼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원도심 변화로 구간의 전선과 통신선을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 통신사와 총 사업비 70억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 사업 모두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 봄이면 정돈된 원도심 경관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개선사업**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청춘로 구간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1897개항문화거리부터 견해산물상가거리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의 노후화된 간판과 건물 입면을 개선한다.

근대역사관 2관 주변의 1.8km 도로는 **안전한 보행길**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차분을 완료한 데 이어, 2022년 2차분까지 모두 완료한다. 보·차도 구분, 펜스와 보안등 설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근대건축자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국내 최초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만호동·유달동 일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들이 가치와 상징성은 보존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볼거리는 더해 이색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다.

- ✓ 구)목포세관창고는 목포의 맛과 역사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으로 (목포9미관+역사관)
- ✓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은 K-TROT을 대표할 대중음악 전당으로 (전시·체험관, 명예의전당)
- ✓ 구)갑자옥모자점은 100년 역사 품은 세계모자박물관으로 (모자 테마, 전시·체험)
- ✓ 구)평화문구점과 구)포도원슈퍼는 오픈스페이스로 (시민 휴식공간)
- ✓ 구)더까빠는 주전부리 3종세트(목화솜빵, 비파다쿠아즈, 맛김새우칩) 판매 공간으로
- ✓ 구)유달원예사와 아인스 매장은 꼼지락 실험실로 (음반제작, 3D목공소)
- ✓ 목조단독주택 마술여행 카페로 (마술 체험, 교육, 소품 판매)

대양산단 분양률 93.7%, 연말까지 100% 완판 예정

목포시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결과 대양산단 분양률이 성공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은 93.7%로 총 87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59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특히 3+1미래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과 문화예술산업을 다각적으로 육성한 결과로, 올해 말까지 대양산단 분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1일 동장

목포시가 관내 2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주민사랑방 등 주민들과 밀접한 장소의 시설도 점검하는가 하면 자생단체회장 등 주민대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목포의 미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들의 삶을 살피며 더 필요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목포의 어제와 오늘을 살피고 내일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



목포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년 맞아 새로운 각오 다져

진정한 주민 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선도위해 노력

목포시의회가 지방의회 3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초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명문화하였고, 1952년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첫 지방선거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중단되어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다행히,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성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창수 의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생활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 30년과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민주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기획복지위원회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현장 방문



도시건설위원회
평화광장 리모델링 공사현장 방문



관광경제위원회
장좌도 유원지사업 현지 활동

목포시의회,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회의 교명변경 찬성 유감 표명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을 위한 교수회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교명변경을 위한 대학 명칭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 8일 교명변경 찬반 투표를 위한 교수회의를 개최했다.

교수회의에서는 교명변경에 대해서 찬성으로 결론을 내고, 어떤 명칭으로 바꿀지는 지역사회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변경 추진에 대해서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의장단이 목포해양대학교총장을 만나 교명변경 추진 철회 요청, 목포해양대학교 교명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명변경을 반대하여 왔다.

목포시의회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회의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대학측이 교명변경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지역민의 정서를 깊이 헤아려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의정소식지 창간호 발간 또 하나의 소통 창구로 기대

의정소식을 담은 소식지가 지난 8월 발간됐다.

‘의정소식지’는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정 사항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의정소식지는 회기별 처리안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 소식, 생활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분기별로 발간되는 의정소식지는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에 비치되며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의회관계자는 비치된 의정소식지는 열람용으로 열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들께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1 06 04 목포시내버스관련 전문가 초청간담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의대 유치 캠페인)

우리동네 소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얼음 생수 무료 제공’

용당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폭서기를 맞아 동을 방문한 민원인, 폐지 수거 어르신, 택배기사, 미화요원 등에게 ‘지원한 얼음생수’를 제공했다.

매일 60명의 생수를 지원했으며 무더위로 지친 주민들은 ‘작은 물병하나로 큰 감동을 느꼈다’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

용당2동



청결위한 방역과 직접 만든 반찬 전달

용당2동 통장협의회는 미관을 해치는 잡초를 제거하고 방역활동을 하는 등 청결한 목포 만들기에 앞장섰다.

또, 천사라눔봉사단(단장 광정숙)은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30여세대를 방문해 직접 만든 김치, 우묵무침, 깻잎장아찌 등 반찬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동



효(孝)사랑 나눔으로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목포시 연동 자생조직연합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수박, 떡, 음료 등 간식을 8개소 경로당에 전달했다. 앞으로도 연동 자생조직 연합회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孝)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산정동



연막방역으로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앞장

산정동 새마을협의회는 회원 10여명과 동 직원들이 코로나19 및 연막방역을 실시했다.

무더위로 모기 등 해충이 많아진 청호웰빙공원을 비롯해 관내 골목길, 동네 구석구석을 소독 방역해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섰다.

연산동



삼계탕 반조리식품 130세트 어르신들께 전달

연산동 통장협의회는 삼계탕재료 130세트를 밀키트(반조리식품)로 만들어,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130여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또 삼계탕재료와 함께 절편을 포장해 전달하면서 우리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원산동



직접담은 김치, 마스크 등에 사랑담아 마음 담아

원산동 새마을부녀회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열무김치 50통(250만원 상당)에 온정을 담아 마스크 및 생필품과 함께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진행 하던 식사대접 대신 물품후원을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대성동



대성장학회 인재육성위한 장학금 전달

대성장학회(회장 손재순)가 '2021년도 대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등학생 2명, 대학생 7명에게 410만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하고 대학생 1명에게는 특별장학금이 장학증서와 함께 수여됐다. 대성장학회는 2012년 1월에 창립돼 올해까지 총 93명에게 3,5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목원동



“사랑의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세요”

목원동 자생단체 연합회는 목원동 저소득 어르신 및 취약계층 2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전달행사를 개최했다.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담은 삼계탕을 대상자 가정에 직접 전달하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동명동



가가호호 방문해 삼계탕 등 사랑나눔 실천

동명동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펼쳐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140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매년 7월마다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각 가정을 방문, 포장된 삼계탕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삼학동



삼계탕, 전복죽 등 취약계층 어르신위한 나눔

삼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자체 회비로 삼계탕 50팩, 전복죽 50팩(50만원 상당)을 구입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만호동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구슬땀

만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목포진, 항동시장 골목, 목포여객선 터미널, 목포수협공판장 앞 도로 등 평소 잡초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잡초 제거와 쓰레기 수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한지 꽃 식재와 벽화그리기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만호동 만들기에 힘을 예정이다.



외달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 바다환경지킴이 정화활동

유달동 주민,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목포시 새마을부녀회는 합동으로 「아름다운 섬 가꾸기! 바다환경지킴이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집중호우로 외달도 해변에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해초 더미 등 80Kg 100여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칙칙했던 건물이 한 폭의 작품으로

죽교동 초롱초롱작은도서관 주변이 아름다운 벽화로 새단장돼 아름다운 미관과 환경으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죽교동 아름다운 벽화마을 만들기 추진단(대표자 박창우) 10여 명은 더운 날씨임에도 도서관 주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자생조직 연합, 여름맞이 경로당 효도 방문

북향동 자생조직연합에서는 지난 7월 관내 경로당 8개소를 방문해 각급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수박과 떡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향동 자생조직은 매년 여름철에 복달임 삼계탕 나눔 행사, 겨울철에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사랑의 복달임, 건강을 기원합니다.

용해동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 저소득층 등 300세대에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의 복달임 행사를 진행했다. 용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철웅)에서 250만원 상당의 생닭과 삼계탕 재료를 후원하여, 코로나 극복과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서로 나누는 즐겁고 뜻깊은 행사를 펼쳤다.



내 방의 작은 정원 반려식물 키우기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 방의 작은 정원 「반려식물 키우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40세대에 반려식물을 전달했다. 연중 꽃이 피는 식물인 「카랑코에」 화분을 전달함으로써 고독과 외로움을 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중앙담벽 지역스토리 담아 재탄생

“상동이 달라지고 있어요” 벗겨지고 색바랜 도시에 위치한 벽이 “우리 동네 상동이야기”로 스토리를 담은 벽화로 변모했다. 버스터미널 뒤편 중앙 가로변에 있는 대형 담벽에 초중생과 지역주민벽화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해 주민의 성장과정을 사계절로 표현한 아기자기한 벽화를 그려냄으로써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행복나눔! 건강기원! 건강한 한끼의 온정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 하당동에 이어지고 있다. 하당동 소재 행복식육식당(대표 장태원)이 삼계탕 100인분(13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무더운 여름에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훈훈한 온정을 전달했다.



삼복더위 이겨내는 '신흥동 이웃사랑 나눔' 이어져

신흥동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초복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독거노인 30세대에 삼계탕 키트를 전달했고, 말복에는 종로식육식당(대표 김행남)에서 저소득 가정 50가구에 한우 양념불고기팩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무더위극복 간식, 따뜻함으로 채우는 사랑나눔

주민자치회는 관내 경로당에 무더위 극복 간식(사골곰탕, 빵, 두유 등)을 전달했다. 음식을 직접 대접하는 대신 개별포장으로 전달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코로나로 인해 자주 대면할 수는 없지만, 삼향동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은 계속 전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옥암동 만들기는 여전히 진행중!

옥암동자생조직 연합은 「아름다운 옥암동 만들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 배출의 온상인 불법 건축물을 주무부서와 합동으로 정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도 공한지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계절 꽃을 심어 「아름다운 옥암동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삼계탕, 타월, 생수등 여름나기 위한 후원 이어져

부흥동에서는 포장용 삼계탕 100여개를 저소득층 어르신 50여세대에 전달했다. 복지통장단이 직접 가정방문 전달했으며 동일광·송월타월(대표 김재웅)에서도 타월 50여개를 후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동참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해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동행정복지센터 내 생수 냉장고를 비치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원비 지원으로 걱정 뚫!

부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저소득 청소년 학원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 사업은 현재 부주장학회와 부주동방위협의회의 210만원 지원금과 모노스학원의 재능기부(90만원 상당)로 중학교 1학년 2명의 청소년에게 매월 25만원씩의 학원비가 지원된다.

전국최초 목포문학박람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고 전 국민이 즐기는 목포문학박람회



2021 목포 문학박람회

MOKPO LITERARY EXPO

10.7(목) - 10.10(일)

목포문학관 일원(주행사장) / 평화광장 / 원도심 일원



주최·주관 | 목포시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국립목포대학교

더 자세한 문의는 

목포문학박람회 사무국 : Tel. 061-270-4042, 4084, 4086

목포문학박람회 홈페이지 : <http://www.mplexpo.kr>